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13	04. 20	04. 27
대 표 기 도	김새연 자매	이예준 형제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김새연 자매	이예준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사순절(3월5일~4월19일) -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된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디지털 금식(SNS, 스마트 폰, TV)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4. 고난주간 특별기도 : 4월14(월)~4월19일(토) 오전 7시, 예배당
5. 부활절 헌금 - 20일(부활주일) 부활절 특별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6. 목회자 모임 - 10일(목) 12시 뒤편 우리교회(임용일 목사 시무)에서 모입니다.
7. 나눔의 시간 - 김복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함께(Euro)	
온라인헌금(3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 (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15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막 14 : 32 - 36(신p80) (Markus 14:32-36)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회복 - 시간확보	이상호 목사
성찬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 막14:22~26	담임목사
* 파송찬양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4월 24일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둔 백승민 자매의 치료를 위해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하도록 훈계합니다. 손가락을 대면 즉각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전기제품이 있다면 만지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만지려고 합니다. “또 만지면 혼난다”고 말해도, 부모님이 보지 않는 사이에 얼른 손을 갖다 대고는 충격에 놀라 웁니다. 이것이 혼란과 무질서로 채워진 오늘날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봐라. 너희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봐라. 자기 멋대로 산 결과 어쩐가 한 번 살펴보아라.”

이러한 삶 인간의 삶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고 모독하면 그분은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방해받기 싫다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 인간이 당면한 두 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뭔가가 먼저 발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었고, 우리의 반역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 / Martin Lloyd-Jones 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2. “주님과 교제”에 필요한 방법들을 나눠보세요